

# 2017년 정유년, 새롭게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 ■ 이성일 원장 신년 메시지



2017년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유독 '다사다난'했다는 소회가  
모두에게 공감되는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생기원을 포함한 출연(연)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존립의 당위성까지 거론되면서  
위기의식이 높아졌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출연(연)들은 자발적인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았습니다.  
물론 기관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면서  
간접비율 2%, 약 24억 원의 재정기여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9월에는 2015년에 이어 미래부로부터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생기원이 최일선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및  
실용화 지원을 이어나 덕분에 얻게 된 결과로  
그만큼 생기원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지난 12월 15일  
생기원의 11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기관장으로서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꾸려 나갈지  
실질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